

【Abstract】

Based on *KuodiZhi*, a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installation time of Five-Bangs in Baekje

Jang, Mi-ae

(Part-time lecturer, Catholic University)

In this paper, based on the contents of *KuodiZhi*(括地志) quoted in *Hanyuan*(翰苑), the characteristics of Bang(方), the highest local governing body in the Baekje local control system after the 6th century, and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were examined. It can be seen that the records comparing Bang (方) to the governor (都督) and the records of Bangryeong (方領) mainly focused on military roles, it could be seen that it had a strong character as an A Military district(軍管區). The installation of Bang(方) was made out of the necessity of Bang(方).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starting with Northern-Bang(北方), Western-Bang(西方) and Eastern-Ban(東方) would have been established.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Baekje and Silla-Gaya was influenced by Southern-Bang(南方), which was subsequently installed. Central-Bang(中方) was installe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he Jeollanam-do region including the Yeongsan River basin.

Keywords: Five-Bang(方), Bangryeong(方領), A Military district,
Hanyuan(翰苑), KuodiZhi(括地志)

연구논문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과
매납품에 관한 연구*

서지민**

- I. 머리말
- II. 신록사 삼층석탑의 양식특징과 제작시기
- III. 신록사 삼층석탑 매납품의 성격과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은 충북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무구정탑이지만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신록사 삼층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파악해서 제작시기를 밝히고, 탑 안에 매납되어 있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을 같은 시기의 다른 무구정탑과 사리장엄구들과 비교, 고찰하여 그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신록사지 삼층석탑의 기단부 결구구조를 중심으로 각 형식과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신라 말인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석탑은 인근에 세워졌다가 후대에 현

* 이 논문은 충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2020)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제의 위치로 옮겨 다시 세워지면서 일부 부재를 보수했다고 추정된다.

신록사지 삼층석탑 상층기단부에 매납되어 있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은 이 탑이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조성된 무구정탑임을 말해준다. 신라시대에는 전문적인 승려가 다라니작단법 등 무구정탑 조성 의례를 집전하였다. 따라서 신록사지 삼층석탑의 매납품은 원상을 잃었지만, 같은 시기 다른 무구정탑의 사리장엄구처럼 금동사리함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토제소탑이 에워싸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토제소탑 안에 다라니를 넣지 않고 따로 서사해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안치했을 것이다. 정통의 공양방식과 달리 토제소탑을 108기 제작한 것은 다양한 발원내용을 한꺼번에 실현할 수 있는 정각을 이루어 모든 번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이해된다.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은 왕실발원작에 비해 재료, 제작기술 등 품질 면에서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인다. 이런 양식적 특징을 감안할 때 제천지역의 향도들이 주도한 결사를 통해서 조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런 신록사지 삼층석탑과 매납품의 고찰을 통해 왕실발원작 위주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통일신라시대 무구정탑의 조성과 신앙에 대한 시각을 보다 넓힐 수 있다.

주제어 :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밀교, 사리장엄구, 무구정탑, 다라니

I . 머리말

제천 신록사는 충북 제천, 단양, 충주와 경북 문경 일대에 자리하는 월악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다. 口傳에 따르면 신록사는 신라 진평왕 4년(582)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뒤 문무왕(661~680) 때 원효대사가 중창하였고, 다시 조선 태조 재위기에 무학대사가 중창한 뒤, 명종 재위기에 사명대사가 또다시 중창했다고 한다.¹⁾ 그러나 현재 신록사에는 신

라 아도화상 창건설이나 원효대사의 중창설을 입증할만한 문헌이나 유물은 없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輿地圖書』에 따르면, 읍치의 서남쪽 40리, 월악촌에서 남쪽으로 돌아 개울을 따라 들어가면 수백 년 전에 폐사된 사찰이 있는데, 인근 霧林寺가 수해를 입게 되자 그 곳에 살던 승려들이 폐사지에 사찰을 중건하고 옛 이름대로 신록사라고 하였다고 한다.²⁾ 『여지도서』의 내용처럼 신라 때 법등을 밝혔다가 폐사되어 있던 신록사가 18세기 전반에 새로 중창되었다는 사실은 1737년에 월악산을 유람할 때 신록사에 들렀던 金履萬(1683~1758)의 「記月岳舊遊」와 「月嶽之西漢院水石」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³⁾ 『여지도서』나 김이만의 기행문 내용처럼 18세기 전반에 중창된 신록사는 1802년에 또다시 재난을 당해 법당이 소실되었다가, 1916년 다시 중수공사가 단행되어 지금과 같은 사찰의 면모를 이루게 되었다.⁴⁾

- 1) 충청북도, 1982, 『寺誌』, 606~607쪽. 한편 신록사라는 사찰명이 사용된 것은 신라 문무왕 때부터라거나 또는 고려 공민왕 때부터라고 전한다. 그 때 인근 마을에 괴질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수경대에서 백일기도를 하고 득도한 고승이 수경대 병풍바위에 숨어있던 귀신을 잡아 항복을 받은 다음 전염병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사찰명을 신록사라 했다고 전한다(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2001,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 24쪽).
- 2) “神勒寺在府治西南四十里自月岳村南轉而入沂溪而行數里許有寺廢未知爲幾百年及霧林寺被水災僧徒募緣重建于此仍冒神勒舊號寶光菴亦稱普光在神勒寺數里許月岳最深處也山僧修鍊者多居之” 『輿地圖書』 忠清道 清風府 寺刹 條.
- 3) “遠尋神勒寺 曾自霧巖移 紺殿歛新構 緇徒多舊知 洞雲扶塔湧 崖石帶松欹 尙記禪堂曉 前峯聽子規” ‘신록사는 멀리 깊은데 일찍이 무암사에서 이전했네. 갑자기 새로 절을 지으니 스님들이 옛 것을 많이 알고 있네. 골짜기에 구름이 도와서 탑이 솟으니 벼랑에 바위는 소나무가 따로 기울었네. 선당에서 깨달은 기록을 숭상하니 전면에 산봉우리 두견새가 청강을 하네’ 「記月岳舊遊」, 『鶴阜先生文集』 卷5 ;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2021년 11월5일 검색), 번역은 유금열 편저, 2015, 『청풍부읍지사료집성 3』, 내재문화연구회, 56쪽. “俄抵神勒寺 寺本新羅舊址 霧巖寺圮於水 霧巖之僧移構于此云 余少也讀書霧巖 故僧多舊識 有戒禪者” 「月嶽之西漢院水石」, 『鶴阜先生文集』 卷9 ; 원문은 한국고전번역원(<https://db.itkc.or.kr>, 2021년 11월5일 검색).
- 4) 이 사실은 1916년에 진행된 극락전 중수공사 때 작성된 상량문을 통해서

이렇듯 신록사의 창건 등의 연혁을 말해줄 관련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찰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最古의 유물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삼층석탑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신록사 삼층석탑은 1981년에 탑이 기울어져서 보수하기 위해서 전면 해체하였는데, 이 때 기단부에서 다수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편이 출토되었다. 이 매납품들은 석탑의 건립배경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록사 삼층석탑의 가치와 의의를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신록사 삼층석탑은 1999년 6월 보물 제1296호로 지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보존, 관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가치와 의의를 밝히는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⁵⁾

이에 본고에서 신록사 삼층석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살펴서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기단부에 매납되어있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편을 같은 개념을 갖고 조성된 동시대의 다른 석탑 매납품들과 비교, 고찰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신록사 삼층석탑과 그 매납품이 갖는 불교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한다.

II. 신록사 삼층석탑의 양식특징과 제작시기

신록사지 삼층석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양식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특징만 언급하면서 다소 막연하게

알 수 있다. 극락전이 1802년에 재난을 당해서 범당이 소실되었다는 사실은 상량문 중의 “慶七年壬戌陰三月回禍時重建之”라는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신록사 극락전 상량문」 大正五年(1916년 작성) ; 원문 및 해석은 채천시, 2018, 『제천 신록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268~282쪽.

- 5) 신록사지 삼층석탑을 본고를 통해 논의하고자 하는 무구정탑으로 인지하면서 소개하는 글은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충청북도, 2017,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II』, 284~285쪽) 정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집필에 참여하면서 신록사지 삼층석탑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 연구는 충청지역, 더 나아가 중원지역의 불교문화를 논의할 때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석탑을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분하여 각 세부형식을 살펴보고자 하며,⁶⁾ 특히 최근 석탑 연구에서 편년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단부의 결구구조를 치밀하게 살펴서 제작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⁷⁾

신륵사 삼층석탑은 이층의 기단 위에 방형 탑신을 3층으로 쌓고 상륜인 노반, 복발, 양화, 대륜, 보륜, 보개를 차례대로 쌓아올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에 속하는 석탑이다.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상륜부는 파손되기 쉬워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예가 드문데 신륵사 삼층석탑은 후보된 부분도 있지만 상륜부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전체적인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흔치않은 예로 주목할 만하다.

신륵사 삼층석탑은 중문인 금강문과 중심불전인 극락전 사이에 있다. 정확하게는 극락전 배치 축에서 27°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며, 석탑의 좌향도 배치 축에 맞추어 동쪽으로 비껴나 있어서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의심된다. 석탑 바깥으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장대석들을 정방형으로 둘러서 塔區를 설치하여 탑과 주변의 경계를 구획하였다(<사진 1>).⁸⁾

6) 신륵사지 삼층석탑의 세부 형식과 크기는 제천시, 2017,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 61~97쪽의 실측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7) 석탑 기단부의 결구구조에 주목하면서 제작시기를 파악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은 한정호, 2004, 「경주지역 신라 전형석탑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불교고고학』 4, 99~121쪽을 필두로 신용철, 2006, 「통일신라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0~175쪽; 同著, 2008, 「통일신라 이층기단석탑의 형식과 편년」, 『동양미술사학』 9, 199~228쪽; 이근우, 2007,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단 결구방식에 대하여 -7~8세기 석탑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63, 147~195쪽; 김지현, 2018, 「신라 8세기 전형양식 석탑의 조영계획 연구」, 『미술사학연구』 297, 5~35쪽; 同著, 2015, 「통일신라 전형양식 석탑의 기단부 유형과 8세기 석탑의 편년 검토」, 『신라문화』 45, 200~217쪽을 대표적인 연구성과로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지현의 「통일신라 전형양식 석탑의 기단부 유형과 8세기 석탑의 편년 검토」에서 제시한 기단부 구조의 분류기준에서 제시한 세부형식에 대한 개념과 용어에 따라서 신륵사지 삼층석탑의 형식과 구조를 서술하였다.

8) 1981년 4월 15일 신륵사 삼층석탑을 해체, 수리하면서 기록한 「제원 신륵사 삼층석탑 보수 중 유물 발견보고」의 수록 사진에도 탑구의 흔적이



<사진 1>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9세기 후반~10세기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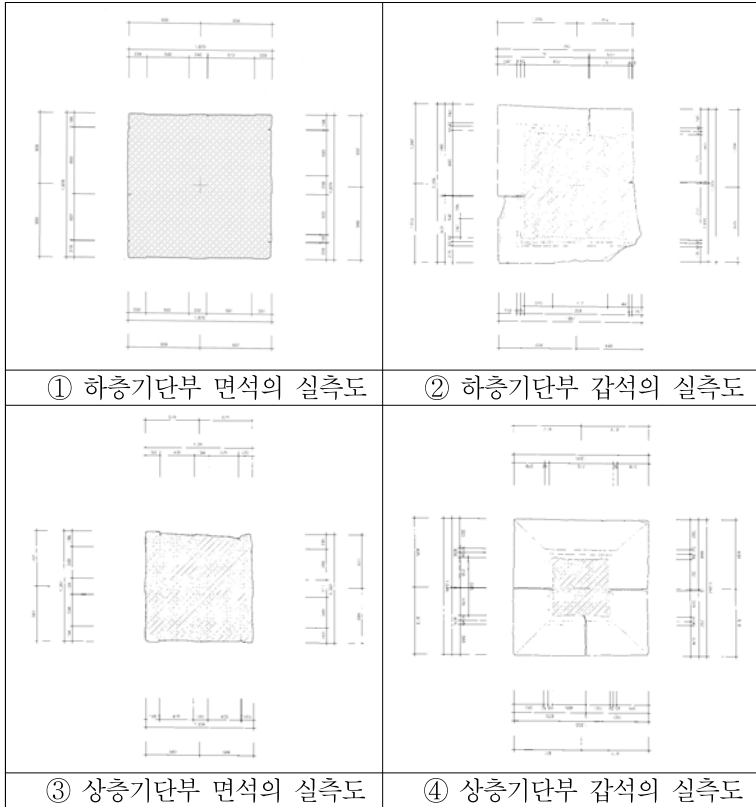
확인되기 때문에 최근 탑을 정비하면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을 복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층기단은 밑에서부터 지대석, 면석, 갑석으로 구성되는데, 모두 별개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지대석으로 균일하지 않은 크기의 장대석 12매를 쌓았는데, 땅속에 묻힌 부분도 있어서 전면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 지대석의 높낮이가 차이나는 이유는 아마도 경사진 지면을 수평으로 고르고자 했던 것 같다. 하층면석은 지대석에서 9~13cm가량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하층면석은 4매의 석재로 제작하였는데, 너비가 약 190cm이고 높이는 약 21cm로 지면과 수평을 맞추기 위하여 북쪽면석을 1cm가량 높였다. 하층면석은 전면과 후면의 면석을 길게 설치하고 그 사이에 좌·우측 측면의 면석을 끼워 넣었다. 이런 결구방식은 소위 사다리물립석에 해당한다.⁹⁾ 북쪽면석은 거의 같은 길이의 장대석 2매를 연결하였으며, 서쪽면석은 한 귀퉁이가 떨어져나가서 근래에 이어 붙였다. 면석마다 우주 2주와 탕주 1주가 있는데, 너비가 일정하지 않다. 하층갑석은 모두 3매의 석재로 제작하였는데, 남쪽갑석은 1매로 북쪽갑석은 2매의 석재를 연결하였다. 하층갑석 윗부분에는 2단의 괴임대를 각출하였다(<사진 1>, <그림 1>).

상층기단은 면석과 갑석으로 구성되는데, 면석은 4매 갑석은 3매의 석재로 제작하였다. 상층면석은 너비 약 135~138cm, 높이 약 82~83cm의 크기이다. 하층면석의 결구방식과는 반대로 양측면의 면석을 길게 설치하고 그 사이에 전면과 후면의 면석을 끼워 넣었다. 이 때 동·서쪽면석은 가로방향으로 설치하면서 양 끝에는 우주를 모각하였고 남·북쪽면석은 동·서쪽면석 사이에 끼워지도록 결구하여 따로 우주를 모각하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동·서쪽면석의 측면부를 우주로 대체하였다. 각 면마다 우주 2주와 탕주 1주가 표현되었는데, 우주는 15~19cm 탕주는 18~21cm로 너비 차이가 크다. 상대갑석 네 면의 너비는 각 163~165cm로 일정한 편이다. 상대갑석 윗면에는 합각선이 나타나며, 그 중앙에는 弧形과 角形으로 2단의 받침석을 각출하였다. 상대갑석 아랫면에는 부연이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갑석은 석

9) 김지현, 위의 논문(2015), p. 203의 《표2. 기단부의 면석이 결구된 형태에 따른 유형분류》 참조.

탑의 다른 부재들과 석재의 색깔이 달라서 후보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림 1>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기단부 면석의 실측도

(『제천신록사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신록사 삼층석탑의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기 1매의 석재로 제작하였다. 탑신석 좌우에는 우주를 모각하였고 옥개석 하부에는 4단의 층급받침이 있다. 옥개석 상면 중앙에는 각형으로 1단의 받침을 각출하였다. 옥개석의 낙수면 경사는 그리 급하지 않고 완만한 편이다. 전각부는 파손된 곳도 있어서 정확

하지는 않지만 현재 풍탁공이 각 층마다 확인되므로 원래는 옥개석 전체에 풍탁을 매달았던 것 같다(<사진 2>).



<사진 2>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신륵사 삼층석탑은 상륜부가 비교적 온전한 흔치 않은 예이다. 3층 옥개석 위로 노반, 복발, 양화, 보륜, 보개가 놓였는데, 보륜과 보개 사이는 대륜으로 연결하였다. 가장 끝에는 상륜부를 관통하는 찰주가 솟아있다(<사진 3>). 노반은 풍화로 인해 심하게 마멸되었는데,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상면에 1단의 층단이 있다. 복발은 편구형으로 양각의 선을 두르고 꽃문양을 표현하였다. 양화는 아랫면보다 윗면의 너비가 넓은 사다리꼴 형태로 중앙부에 3단의 층급을 표현하였다. 보륜은 원반형으로 3단인데, 가장 위의 보륜은 후보된 것이다. 보륜의 하부에는 대륜과 연결되는 부분에 받침대가 각출되어 있다. 보개는 8각의 옥개석 같은 형태이다. 주목되는 것은 보륜과 보개의 가장자리에 풍탁을 매달았던 흔적으로 생각되는 원형의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다는 사실이다(<사진 3-②>). 파손되기 쉬운 석탑 상륜부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사진 3>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이상 신록사 삼층석탑의 세부적인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석탑의 제작시기를 추정하는 주요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단부의 결구구조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양식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신록사 삼층석탑은 지대석, 면석, 갑석으로 구성되는 하층기단부 모두 각각의 석재로 제작되었다. 또 하층면석은 5매의 석재를 사다리물림식으로 결구하였으며, 하층갑석은 3매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상층면석은 4매의 석재를 사다리물림식으로 결구하였으며, 상층갑석도 3매의 석재로 이루어졌다. 이런 기단부 하층면석과 상층면석의 석재 수나 결구구조, 하층갑석과 상층갑석의 석재 수나 결구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제작시기는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 무렵으로 추정된다. 또 하층갑석 윗면에 2단 받침이 표현되었는데, 아랫단인 각형받침에 비해서 윗단인 호형받침의 높이가 높게 표현된 점이나,¹⁰⁾ 옥개석 받침이 4단으로 표현되었고 낙수면의 경사가 심하지 않

은 점도 신록사 삼층석탑이 통일신라시대 석탑 중에서도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양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록사 삼층석탑은 가람배치 축과 어긋나 있을 뿐만 아니라 9세기 이후의 석탑에서 흔히 보이는 지대석 아래에 놓이는 하대저석이 없고, 탑구도 치석하지 않은 장대석을 둘러쌓았을 뿐이라서 석탑이 처음 조성되었던 신라 말부터 이런 형태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극락전의 기단에는 갑석으로 보이는 부재가 있으며, 극락전 초석으로 사용된 옥개석도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록사 삼층석탑이 원래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건립된 이후 무너졌다가 어느 시점엔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 다시 세워지면서 일부 부재는 후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앞서 서술했던 『여지도서』나 김이만의 「記月岳舊遊」, 「月嶽之西漢院水石」에 霧林寺의 승려들이 범등이 끊긴 채 터만 남아있던 신록사를 새로 중창했다고 하는데, 18세기 전반에 무너져 있던 석탑을 자리를 옮겨 다시 세우면서 일부 부재들을 새로운 부재로 교체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Ⅲ. 신록사 삼층석탑 매납품의 성격과 특징

신록사 삼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는 중에 상층기단에서 토제소탑 108기와 금동사리함편 2매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석탑 내부에 금동사리함편과 함께 토제소탑이 다수 매납되어 있다는 것은 신록사 삼층석탑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후 『無垢淨經』으로 약칭)에 의거하여 조성된 것임을 말해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무구정경』에는 古塔을 중수하면서 다라니를 서사하여 77기 또는 99기의 小塔을 만들어 탑 안에 넣고 다라니를 염송하는데, 그 때 단을 만들어 의식을 치른다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근간을 이룬다. 이 보다 좀 더

10) 김지현, 2020,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의 양식과 제작 시기」,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국립진주박물관, 228쪽.

상세한 내용은 外道에 귀의하여 불법을 믿지 않았던 劫比羅戰荼라는 바라문이 석가모니를 찾아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구하자,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석가모니는 6종의 다라니와 그에 따른 공양방식과 공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즉 6종의 다라니에서 제시한 공양방식을 실행하면 죽은 사람은 육도를 피할 수 있으며(避六道), 아픈 사람은 회복될 뿐만 아니라(治病) 목숨도 연장하게 되며(長壽), 죄와 업장이 없어지고(滅罪業障), 죽은 후에 깨달음을 얻고(得正覺) 극락왕생(生極樂界)하거나, 묘희왕생(復於妙喜世界)하거나, 도솔천왕생(於耆闍天宮)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¹¹⁾

11) 『무구정경』의 내용과 6종다라니에서 설명한 공덕방식과 공덕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바이다. 필자는 彌陀山譯, 『無垢淨光大陀羅尼經』(『大正新修大藏經』卷19, pp. 718b~720b)와 동국역경원, 1999,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外』 한글대장경 258 - 밀교부 12, 1~12쪽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1. 『무구정경』의 공양방식과 공덕내용>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필자가 참고한 논고는 주경미, 2004,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2, 173~176쪽; 원선희, 2008, 「신라시대 무구정답의 건립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신앙」, 『한국학논총』 30, 132~134쪽; 옥나영, 2016,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9~113쪽.

<표 1> 『무구정경』의 공양방식과 공덕내용

	根本 다라니	相輪幢 다라니	修造佛塔 다라니	自心印 다라니	功德聚 다라니	六婆羅密 다라니
공 양 방 식	탑돌이 77회			탑돌이 108회		
	다라니 念誦 77편		다라니 念誦 1008편	다라니 念誦 1008~ 11000편	다라니 念誦 28편	다라니 念誦 7편
	書寫 77본	書寫 99본	書寫	書寫 99본	4종다라니 書寫 99본	4종다라니 書寫 99본
	향공양	향공양		향공양	향공양	향공양
	小塔 77기 봉안	小塔 봉안	小塔 봉안	小塔 봉안	小塔 99기 봉안	小塔 99기 봉안
	소탑 내 다라니공양	소탑 내 다라니공양	소탑 내 다라니공양	소탑 내 다라니공양	소탑 내 다라니공양	소탑 내 다라니공양
	作壇				作壇	作壇
공 덕 내 용	長壽 避六道 所願成就 治病 滅罪業障 淨土往生 得正覺 護國	善根福德 得正覺 滅罪業障	善根福德 長壽 淨土往生 得正覺	滅罪業障 所願成就 善根福德 得正覺	滅罪業障 長壽 治病 淨土往生 得正覺 避六道	滅罪業障

신륵사 삼층석탑의 상층기단부에서 토제소탑 108기와 금동사리함편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공양방식을 따라 공덕을 얻고자하는 조성한 무구정탑임을 말해준다. 8세기 초반에 『무구정경』이 신라로 전래되면서 탑을 건립하는 목적과 사리장엄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공덕을 얻기 위해 무구정탑을 건립하게 되었고, 또 『무구정경』이 身舍利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法舍利로 인식되면서 사리장엄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을 필두로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 황룡사 구층목탑, 대구 동

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합천 해인사 길상탑 등 8세기 전반부터 10세기 초반까지 출몰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수많은 불탑이 건립되고 그 안에 소탑이나 사리장엄구 등을 매납하고 있어서 『무구정경』 신앙의 유행을 살펴볼 수 있다.

<표 2>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조성, 신앙된 통일신라시대 주요 불탑과 매납품¹²⁾

	명칭	연대	무구정소탑			공반유물	다라니	발원내용
			재료	수량	봉안 위치			
1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706년	사리함 조각	99기	2층 옥개석	금동사리의함 순금제불상 2구 금은제고배 녹유리병 파편 외	竹簡 (다라니주?)	亡者追善 生者長壽 天下泰平 避六道 得正覺
2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8세기 초반	목조	14기	3층 옥개석	금동사리함 금동불상 외	6종 다라니 필사본	
			금동	4기				
3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8세기 중반	목조 (금칠)	13기	2층 탑신 사리공 외부	금동사리의함 은제사리내·외함 녹유리사리병 항목사리병 은제사리소호 외	무구정경 1권 목판 인쇄본	
				1기	사리공 내부			
				4기	찰주공			
4	傳 남산출토 사리장엄구 (小倉 컬렉션)	8세기 중반	사리함 조각	99기		금동원통형 사리함 은제보탑형사리기 은제난형사리기 은제사리소호 외		

12) 본고에서는 관련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무구정탑의 사례와 매납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륵사 삼층석탑의 매납품과 조성시기, 지역, 발원 계층, 사리장엄구의 봉안처, 발원내용 등에서 비교되는 사례를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목록작성에는 한정호, 2007, 「신라 무구정소탑 연구」, 『동악미술사학』 8, 35~38쪽; 김영옥, 2013, 「통일신라기의 쌍탑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탑 영향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43~84쪽; 옥나영, 앞의 논문(2016), 125~126쪽을 주로 참고하였다.

5	경주 창립사지 삼층석탑	855년						衆生利益 生淨域 成就佛道
6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863년	목조 (금철)	3기	1층 탑신	금동사리의외함 납석제사리호 외		(민애대왕 사리기) 滅罪業障 成就佛道 昏亂克復
7	봉화 축서사 삼층석탑	867년						生極樂 衆生利益
8	경주 행통사 구층목탑	872년 보수	석재	99기	상륜부	금동사리의외함편 금동내함(찰주 본기)금·은제함 은제연기법송판 외	4층 다라니	
9	중화 3년명 금동 사리기	883년			77기		다라니 77벌	衆生菩提 證得
10	해인사 길상탑	895년	소조 (녹유)	157 기		유리와 소조소탑 99기와 77기 (진언을 봉안) 등 봉안물 목록 기재 탑지4매 외	무구정경 1권 다라니 176벌	亡者追善 衆生利益
11	구례 화엄사 서오층 석탑	9세기 후반	종이에 塔印 납석제 목조	다수 2기 1기	1층 탑신 상층 기단	청자양이호 외 (총8중30점) 청동불상틀 외 (총8중42점)	근본 다라니 필사본	
12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탑	9세기 후반	납석제	99기	1층 탑신	眞鑑제사리함 향목편 외		
13	대구 동화사 금당암 동탑	9세기 후반	석재	다수		금동의함 은제사리내함 납석제탑지석 외		
14	봉화 서동리 동삼층 석탑	9세기 후반	소조	99기		납석제호 녹유리사리병 외	다라니편	

15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9세기 후반	납석제	64기	기단 아래			
16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9세기 후반 ~ 10세기 전반	토제	108 기	상층 기단	금동사리함편		

<표 2>의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조성된 통일신라시대의 주요 불탑 사례와 신록사 삼층석탑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을 비교해보면, 신록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의 원형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그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4>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해체수리 공사 장면
(국가기록원 보관본)

신록사 삼층석탑을 해체, 수리할 때 상층기단부의 잡석더미 속에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편이 뒤섞여 있었다고 한다(<사진 4>). 이런 출토상황을 볼 때 신록사 삼층석탑에 매납된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편은 처음 제작되어 봉안될 당시의 原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록사 삼층석탑이 자리를 옮겨 세우면서 후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탑신부나 상륜부에 사리공이 없으므로 사리장엄구는 원래부터 상층기단부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석탑의 무거운 하중을 직접 받게 되는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

나면서 상층기단부는 함몰되기 쉽다. 따라서 상층기단부에 안치되어있던 사리장엄구는 이런 이유로 원상을 잃고 파손되어 적심으로 사용된 잡석들과 뒤섞이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렇다면 신록사 삼층석탑에서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합편 외에 다른 사리장엄구가 출토되지 않은 이유도 같은 원인 때문에 파손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정식의 발굴조사가 아니라 석탑을 해체수리 하는 중에 출토된 유물을 긴급하게 수습했기 때문에 파손된 사리장엄구를 완전하게 수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 장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신록사 삼층석탑은 처음 건립된 이후 후대에 현재의 위치로 이동되었다고 추정되는데, 그 때 이미 사리장엄구가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되고 남은 잔편들만 상층기단부에 넣었을 수도 있다.

이무튼 현재 신록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합 뿐으로 전체적인 구성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래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신록사 삼층석탑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과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원형과 배치방식을 짐작해 보고자 한다.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에는 소조소탑 99기가 유리제사리병이 들어있는 납석제호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며 (<사진 5>),¹³⁾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에도 眞鑰製사리합과 납석제소탑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었다고 한다(<사진 6>).¹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어떤 개연성도 찾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사찰의 두 석탑에서 사리합과 소탑을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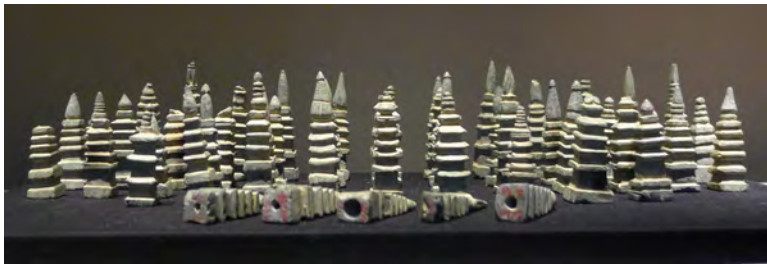
13) “토탑 99기, 중앙의 사리호를 둘러 쌓고 함께 99기의 同大同形の 灰白色土塔이 叢立하고 있었는데 (중략)” 황수영, 1963,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의 사리구」, 『미술자료』 87, 3쪽.

14) “탑신을 이중으로 얹게 깎아서 걸쳐있었으며, 그 밑에 깊이 20여 센티미터 가량으로 函室을 마련하여 바닥에 백지를 겹쳐서 깔고 중앙에 사리합을 안치하고 주변에 꼭 차게 소석탑을 林立하여 놓고 그 위에 23센티미터 사방의 백지 3매를 덮어 놓아 있는데 (중략)” 이홍식, 1958, 「동화사 금당암 서탑 舍利製置」, 『아세아연구』 1-2, 3쪽.

있다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규범에 따라 사리함과 소탑을 봉안했음을 시사한다.



<사진 5>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출토 상황
(황수영, 1963: 사진3)



<사진 6>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 출토 납석제 소탑
(9세기 후반,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다음 신라하대에 활동했던 최치원의 저술인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와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에는 당시에 다라니를 전공하는 승려가 존재했음을 말해주고 있어 주목된다.

다시금 화려한 楚나라의 鳳과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름을 周璞과 나란히 한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懺誦으로 추천되고, 어떤 이는 總持로 특채되며, 어떤 이는 화려한 무리로써 용되고, 어떤 이는 苦節로써 보답받기도 하였다. (중략) 이로부터

가야산의 勝景은 도를 성취하는 터전에 잘 들어맞았으며, 해인의 특별한 보배는 더욱 으뜸가는 보배의 가치를 빛냈다. 이미 玉林이 모두 (절터로) 선발되었으니, 실로 진주의 언덕이 마르지 않음과 같았다. 그러므로 터를 닦은 것은 겨우 백년밖에 안되지만 나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은 스물여덟 大德이나 되었는데, 念誦持戒로 함께 (대덕에) 오른 자가 다섯이요, 演暢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자리에 앉은 이가 셋이었다.¹⁵⁾

그 해(908) 첫겨울에 등루를 세우고 11월 4일에 공산 동사의 弘順大德을 맞이하여 座主를 삼고, 齋를 베풀어 慶讚하였다. 泰然大德, 靈達禪大德, 景寂禪大德, 持念 緣善大德, 興輪寺의 融善呪師 등 고승(龍象)들이 빠짐없이 모여 법회를 장엄하게 하였다.¹⁶⁾

먼저 인용한 「신라가야산해인사선안주원벽기」의 대목은 大德의 선발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摠持, 즉 다라니를 전공하는 이를 대덕으로 특채하기도 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해인사에는 28명의 대덕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念誦持戒, 즉 다라니 독송을 잘하는 대덕이 5명 배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화엄종 사찰인 해인사에서 다라니 전문 대덕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다라니가 특정 종파에만 한정되지 않고 불교계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다음에 인용한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에도 公山(팔공산) 桐寺(동화사)에서 908년에 흥순대덕이 慶讚齋를 설행하였는데, 이 때 다라니를 염송하는 持念가 전문인 녹선대덕이 참여하고 있어서 밀교적인 수법이 당시 불교계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¹⁷⁾

15) 최치원,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원문과 해석은 최영성 역주, 1999, 『譯註 崔致遠全集 2 -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281쪽, 285~286쪽, 290쪽, 294쪽].

16) 최치원,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원문과 해석은 최영성 역주, 1999, 『譯註 崔致遠全集 2 -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299쪽, 304쪽].

17) 持念을 摠持宗으로 보는 견해는 서운길, 1993, 「신인·총지종의 성립과 전개」,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151~156쪽.

이렇게 신라 말에는 밀교수법인 다라니를 전담하는 승려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축서사 납석제 사리호의 명문 중에는 “無垢淨一檀”을 설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어서 『무구정경』에 의거하는 작단법도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황룡사 승려인 賢炬는 “壇師”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서 다라니작단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승려로 추정된다.¹⁸⁾ 따라서 무구정탑을 건립할 때는 다라니작단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승려가 의례를 주관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무구정탑에 봉안되는 사리장엄구도 특정한 규범에 따라 봉안되었을 것이다. 석탑의 규모나 발원자 신분, 발원의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매납품의 종류나 수량,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리를 봉안하는 사리함과 서사한 다라니, 그리고 소탑은 무구정탑에 안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리장엄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신록사 삼층석탑의 상층기단부에도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이나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에 금동사리함을 두고 그 주변으로 토제소탑을 몇 겹으로 둘러서 배치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¹⁹⁾

18) “승려 彦傳의 어머니는 이름이 明端으로 부친 伊浪 金亮宗公의 막내딸이다. 스스로 커다란 서원을 발휘하여 직접 불탑을 세워서 정토에 갈 수 있는 공덕을 세우고 아울러 속세의 생령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 (언부는) 이 뜻을 효성스럽게 받들어서 이 탑을 세우고 부처의 사리 10과를 넣고 무구정경에 의한 법회를 열었다. 법회의 작단을 맡은 승려는 皇龍寺의 賢炬이다. 唐나라 咸通8년(867)에 세운다 (밀면) 石匠은 神擘이다” 「鷲棲寺 蠟石製舍利函記」 [원문과 해석은 최연식, 1992, 「축서사 납석사리함기」,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국사개발연구원, 361~362쪽에서 부분 수정]. 이 명문 중의 현거를 다라니작단법 전문승려로 보는 견해는 김연민, 2019, 「신라시대 다라니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459쪽.

19) 서동리 동삼층석탑과 대구 동화사 금당암 서삼층석탑에 안치된 사리함과 소탑의 정연한 배치체계는 무구정단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무구정단의 실체를 밝혀줄 직접적인 자료가 없어서 막연한 상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구정단에 대해서는 석탑 그 자체로 보는 견해(장충식, 1987,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40~141쪽)도 있고, 9세기 중반 이후의 석탑 중에 하층기단 아래에 갑석이 한 단 더 있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과 같은 형식을 무구정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

	
<p>① 토제 소탑 일괄 (국가기록원 보관)</p>	<p>② 토제 소탑 (국립청주박물관 소장)</p>
	
<p>③ 토제 소탑의 밑면</p>	<p>④ 토제 소탑의 손자국</p>

<사진 7> 제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토제 소탑

다음 신록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편을 다른 무구정탑 출토의 예들과 비교하여 그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토제소탑은 높이 3.5~5cm정도로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또 대략적으로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가 구분될 뿐 세

해(신용철, 2009, 「신라 불탑에 있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55~60쪽), 석탑과는 별도의 수법단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견해(주경미, 앞의 논문(2004), 169쪽) 등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인 형태까지 정교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즉 손으로 형태를 빚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후에 대충 선을 그어서 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탑의 형태도 제각각이다. 게다가 흙으로 만든 탑을 소성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건조하였다(<사진 7>).



<사진 8> 소탑 각종

반면 경문왕이 민애왕을 추모하고자 조성한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목조소탑은 改金하였고, 895년경 해인사 부근에서 전사한 僧軍들을 위로하고자 僧匠들이 조성한 해인사 묘길상탑 내부에서 발견된 소조소탑은 녹유를 발라 소성한 것으로 신륵사 삼층석탑 출

토의 토제소탑과는 재질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크다(<사진 8>).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소조소탑도 재료가 흩어지만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분되는 방형의 3층탑으로 흙을 틀에 넣고 찍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탑의 형태가 일정하고 세부적인 표현까지 정교해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소탑과 재질만 같은 뿐 외형은 전혀 다르다.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토제소탑은 바닥 면에 다라니를 납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다(<사진 7-③>). 8세기의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에서 출토된 목조소탑이나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목조소탑도 低孔이 없다(<사진 9>, <그림 2>). 그러나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에서는 6층의 다라니 필사본이 발견되었고,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에서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목판으로 인쇄한 『무구정경』이 출토되었다. 이런 경우는 저공에 다라니를 끼워 넣지 않더라도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라니를 따로 매납하여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공양방식을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보면, 신록사 삼층석탑도 토제소탑과 별도로 서사한 다라니를 매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목조소탑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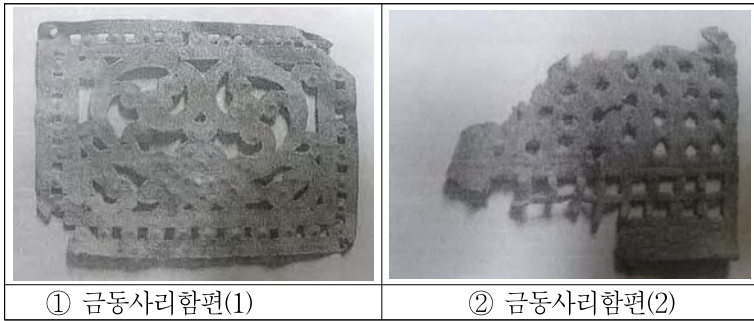
<사진 9>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목조소탑
(8세기 중반, 불국사성보박물관 소장)

한편 108기라는 토제소탑의 수량도 매우 이질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구정경』에는 다라니를 염송하면서 77본 내지는 99본 서사하여 소탑에 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서술하고 있다. 실제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무구정탑에는 대체적으로 77기 내지는 99기의 소탑을 봉안하고 있다. 그런데 108기라는 수량은 77기나 99기보다는 많고, 77기와 99기를 각각 제작하여 함께 안치했다고 가정한다면 둘을 합한 176기 보다는 수량이 현저히 모자라서 일부만 파손되고 남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108기를 제작했다고 생각된다.

불교에서 108이라는 숫자는 중생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마음 작용을 일컫는 번뇌를 상징한다.²⁰⁾ 번뇌를 없애는 것은 불교 수행의 목적

이라 할 수 있는 정각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무구정경』에서는 정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수단인 다라니를 염송하고 서사한 수량만큼 소탑을 만들어 공양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108은 모든 번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번뇌를 끊고 정각을 얻게 하는 다라니의 수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무구정탑을 조성하는 목적은 망자추선, 정토왕생, 장수, 소원성취, 업장소멸 등을 공덕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런 공덕내용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무구정경』의 6종다라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표 2》 통일신라시대 무구정탑의 발원내용을 보면 무구정탑의 발원자들은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공덕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발원목적에 맞는 공양방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록사 삼층석탑에 108기의 소탑을 안치한 것은 결국 무구정탑을 조성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공덕, 즉 망자추선, 정토왕생, 장수, 소원성취, 업장소멸 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 정각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108개의 다라니를 염송하고 서사하여 그 수량만큼 소탑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108번뇌를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정각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20) 불교에서 번뇌는 우리의 몸에 있는 감각기관이 어떤 외부의 대상과 접촉함으로 생겨난다고 본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기관은 6가지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6根이라고 해서 눈(眼), 귀(耳), 코(鼻), 혀(舌), 몸(身), 마음(意)으로 설명한다. 또 6근은 저마다 다른 대상과 접촉하면서 우리의 심리작용, 행동작용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 대상을 6境이라고 하는데 색깔이나 형태(色), 소리(聲), 향기(香), 맛의 요소(味), 촉감의 요소(觸), 마음으로 파악되는 원리(法)가 그것이다. 이런 6근과 6경이 접촉하면서 그 상호작용으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6근의 상호작용은 ‘좋다(好)’, ‘나쁘다(惡)’,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無記)’라는 판단으로 나타나므로 여기서 18가지의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 반면에 6경은 ‘괴롭다(苦)’, ‘즐겁다(樂)’,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捨)’는 세 가지 감정을 일으킨다. 여기에서도 18가지의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6근과 6경의 36가지 번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 걸쳐 모두 108가지의 번뇌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광철환 편저,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13쪽; 「108번뇌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교신문, 2006년 11월 18일(<http://www.ibulgyo.com>, 2021. 11. 24. 검색].



<사진 10>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편
(국가기록원 보관)

다음 토제소탑과 함께 출토된 금동사리함편은 모두 2점인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점은 장방형의 금동판을 2중으로 구획하여 안쪽에는 연꽃에서 하트모양으로 넝쿨이 퍼져나가는 문양을 시문하고 주변부를 투각하였으며, 테두리에는 사각형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각하였다. 가로9cm, 세로7cm의 크기이다(<사진 10-①>). 또 다른 금동사리함편은 완전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 심한 편이지만 재질이나 두께, 사각형과 원형을 투조로 나타낸 시문방식이 같고 세로의 길이도 얼추 비슷하므로 현재 2점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 1개체였다고 생각된다(<사진 10-②>). 즉 장방형의 금동판이 사리함 정면이나 뒷면일 것이고, 크기가 작은 금동판이 측면에 해당할 것이다. 장방형의 금동판 모서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므로 측면의 금동판과 리벳으로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사리함을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금동사리함편과 흡사한 예로 통일신라 후기작으로 추정하는 창녕 말흘리 출토 금동장방형장식판을 꼽을 수 있다(<사진 11>). 창녕 말흘리 출토 금동장방형장식판도 장방형의 금속판을 2중으로 구획하고 내부에 S자형의 당초문을 나타내고 주변을 투각하였으며, 테두리에는 물방울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르고 나머지 부분을 투각하였다. 또 장식판의 네 모서리에는 다른 금동판들과 연결되는 원형의 구멍이

있다. 이처럼 유사한 형태의 문양을 같은 시문방식으로 표현하고 또 금동관의 결구방식도 같으므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도 창녕 말흘리 출토 금동장방형장식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은 이 석탑이 처음 건립되던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경에 제작되어 탑 속에 안치되었던 사리장엄구로 판단된다.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이나 傳 남원 출토 금동사리함, 의성 빙산사지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은 내부의 사리병이 보이도록 사리함을 투각하고 있어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과 흡사하다(<사진 12>).



<사진 11> 창녕 말흘리 출토 금동장식판
(통일신라 후기,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사진 12>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
(8세기 중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그러나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의 금동판 결구방식은 모서리에 별도의 금속판을 덧대고 그 위에 연꽃봉오리 모양의 리벳으로 고정하는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이나 금동판 가장자리에 접힌 부분이 서로 맞물리면서 구멍들이 맞춰지면 리벳으로 고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과 차이를 보인다. 또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에 시문된 三尊佛像은 축조기법과 모조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선조의 굽기가 일정하고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타출기법으로 양감을 표현하여 입체감이 두드러져 있어서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의 연화당초문보다 훨씬 정교하게 표현되었다.²¹⁾ 이와 같이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은 동시에 제작되었지만 왕실에서 발원하여 기량이 뛰어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불국사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이나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과 는 제작방식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사진 13>).



<사진 13>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의 금동판
(863년, 국립대국박물관 소장)

21)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출토 금동사리함의 제작수법에 대해서는 서지민, 2018, 「신라 경문왕대 동화사 비로암 불교미술품의 특징과 의의 ; 민애왕 원당 조영에 관한 불교미술사적 고찰」, 『고문화』 91, 25~28쪽.

이상으로 신록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같은 시기에 왕실이나 귀족들이 발원하여 제작한 예들과 비교한 결과 품질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토제소탑은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재료인 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형태도 정형화되지 않고 제각각이며 심지어 만든 사람들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장인이 아니라 발원자들이 직접 소탑을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사진 7-④>). 게다가 토제소탑의 수량은 108기로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공양방식에 부합하는 77기나 99기가 아니다. 물론 108이라는 수량은 내세와 현세의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하고자 정각을 이루고자 발원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지만, 정통의 『무구정경』의 공양방식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로 무구정탑 구성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가 부족한 계층이 발원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금동사리함에서도 국가에 소속된 전문적인 장인들의 솜씨라고 볼 수 있을만한 고급의 제작기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록사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당시 최고 수준의 작품들과 재질이나 제작기술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제천지역의 香徒들이 주도한 結社를 통해서 조성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신록사 삼층석탑과 그 속에 매납되어 있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이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신라 말은 사회적인 혼란이 겹치면서 치병이나 장수, 죽은 사람의 정토왕생, 국가의 평안과 국토의 안녕 등 개인적인 소원성취부터 호국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계층이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리를 지어 사경을 하고, 불탑이나 불상을 조성하는 등의 공덕불사를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인 결사가 성행하였다. 결사는 왕가나 귀족, 승려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래서 신라 말에는 지방의 향도들이 공덕불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무구정탑을 조성하는 공덕불사는 왕경과 그 일대에서 왕가나 귀족들이 발원한 사례들만 잘 알려져 있었다. 즉 경주 구황동 삼층석탑, 경주 불

국사 삼층석탑, 경주 창림사지 삼층석탑, 대구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 등이 통일신라시대 무구정탑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신륵사 삼층석탑과 그 안에 매납되어 있던 사리장엄구는 왕가나 귀족이 발원한 무구정탑과 사리장엄구에 보이는 최고수준의 품질과 대비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²²⁾ 즉 신라 말 제천지역의 향도들이 결사를 통해서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륵사 삼층석탑과 사리장엄구를 통해 무구정탑 신앙이 어떤 양상을 띠면서 지방의 기층민에게까지 확산되었는지 살펴봄으로서 통일신라시대 무구정탑의 전개양상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V. 맺음말

기왕의 통일신라시대 무구정탑과 그 속에 매납된 사리장엄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왕경과 그 일대에서 왕가나 귀족들이 발원한 예들만 논의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렇지만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기층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지방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무구정탑 신앙을 영위하였는지 의문이 생긴다. 즉 왕권을 공고히 다지려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先代 王을 추모하고자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무구정탑을 조성하고 고품질의 사리장엄구를

22) 한편 필자는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을 연구하면서 조상기에는 국왕이 불상을 발원하고 대덕 결연이 총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왕실발원작에 비해서 철불의 제작수법이 떨어지고 불사의 조직체계도 엉성함을 지적하면서 지방의 단월들이 국왕과 고승의 명성을 빌려 불사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홍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서지민, 2017,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도상적 의의와 조성배경에 관한 고찰」, 『신라문화』 49, 90~96쪽]. 철조노사나불상과 함께 제작되었을 삼층석탑과 규모나 제작기술, 소탑의 품질을 보더라도 당시 삼화사의 불사는 제천 신륵사의 경우처럼 그 지역의 향도들이 주축이 되어 결사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하는 사례만 부각하는 기왕의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지방의 향도들이 주축이 되어 조성한 무구정탑과 사리장엄구는 왕실발원의 예들과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또 지방의 무구정탑 신앙은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해명한다면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무구정탑의 조성과 신앙에 대해서 보다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라 말 제천지역의 향도들이 결사를 통해서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록사 삼층석탑과 그 안에 매납되어 있던 토제소탑과 금동사리함의 고찰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무구정경』에서 서술한 공양방식과 공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탑과 매납품을 조성했던 왕실의 무구정탑과 사리장엄구와는 달리 지방의 향도가 주축이 되어 결사를 통해 조성한 경우는 『무구정경』의 공양방식을 遵守하지 못했던 것 같다. 신록사 삼층석탑이 원위치에서 원상 그대로인 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리장엄구의 품목이 보다 간소화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무구정탑이나 금동사리함을 조성할 때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장인을 동원하지 못했으며, 특히 토제소탑의 제작 솜씨를 볼 때 단월들이 직접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토제소탑의 수량이 108개로 『무구정경』에서 제시한 공양방식에 위배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다라니작단법을 전문으로 하는 승려가 불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무구정탑의 공양방식을 참고하되 여건에 맞게 변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토제소탑을 108이라는 번뇌를 상징하는 수량으로 제작한 것은 결사에 참여한 향도들의 다채로운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각을 이루기를 기원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된다.

[투고일: 2021.11.15,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1. 사료

- 「記月岳舊遊」, 『鶴臯先生文集』 卷5
「神勒寺 極樂殿 上樑文」
「新羅迦耶山海印寺善安住院壁記」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
「月嶽之西漢院水石」, 『鶴臯先生文集』 卷9
「鷲棲寺 蠟石製舍利函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大正新修大藏經』 卷19)
『輿地圖書』 忠清道 淸風府 寺刹 條.
「108번뇌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불교신문, 2006년 11월 18일.

2. 보고서 및 단행본

- 곽철환 편저, 2003,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동국역경원, 1999,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外』 한글대장경 258 - 밑교부 12.
유근열 편저, 2015, 『청봉부읍지사료집성 3』, 내재문화연구회.
장충식, 1987,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제천시, 2017,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정밀실측조사보고서』
제천시, 2018, 『제천 신륵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최영성 역주, 1999, 『譯註 崔致遠全集 2 - 孤雲文集』, 아세아문화사.
충청북도, 1982, 『寺誌』.
충청북도, 2017,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II』.
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2001,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

3. 논문

- 김연민, 2019, 「신라하대 다라니 신앙과 그 의미」, 『한국고대사탐구』 33.
김영옥, 2013, 「통일신라기의 쌍탑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탑 영향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

- 김지현, 2015, 「통일신라 전형양식 석탑의 기단부 유형과 8세기 석탑의 편년 검토」, 『신라문화』 45.
- _____, 2018, 「신라 8세기 전형양식 석탑의 조영계획 연구」, 『미술사학연구』 297.
- _____, 2020,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의 양식과 제작 시기」,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국립진주박물관.
- 서운길, 1993, 「신인·총지종의 성립과 전개」, 『고려밀교사상사연구』, 불광출판부.
- 서지민, 2017,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상의 도상적 의의와 조성배경에 관한 고찰」, 『신라문화』 49.
- _____, 2018, 「신라 경문왕대 동화사 비로암 불교미술품의 특징과 의의: 민애왕 원당 조영에 관한 불교미술사적 고찰」, 『고문화』 91.
- 신용철, 2006, 「통일신라 석탑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8, 「통일신라 이중기단석탑의 형식과 편년」, 『동양미술사학』 9.
- _____, 2009, 「신라 불탑에 있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영향」, 『불교학연구』 23.
- 옥나영, 2016,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유통과 그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선희, 2008, 「신라시대 무구정탑의 건립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신앙」, 『한국학논총』 30.
- 이근우, 2007, 「통일신라시대 석탑의 기단 결구방식에 대하여 - 7~8세기 석탑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63.
- 이홍식, 1958, 「동화사 금당암 서탑 舍利製置」, 『아세아연구』 1-2.
- 정영호, 1997, 「삼화사 철불과 삼층석탑의 불교미술사적 조명」, 『문화사학』 8.
- 주경미, 2004, 「한국 불사리장엄에 있어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의의」, 『불교미술사학』 2.
- 최연식, 1992, 「축서사 납석사리함기」,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3, 가락

국사개발연구원.

한정호, 2004, 「경주지역 신라 전형석탑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불교고고학』 4.

_____, 2007, 「신라 무구정소탑 연구」, 『동악미술사학』 8.

황수영, 1963, 「봉화 서동리 동삼층석탑의 사리구」, 『미술자료』 87.

【Abstract】

A Study on the Burial Goods in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the Silleuksa Temple in Jecheon

Seo, Ji-Min

(Assistant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Silleuksa Temple in Jecheon is a Mugujeong pagoda built in the period of united Silla, which is rare in Chungbuk, bu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until now. Therefore, this study graspe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Silleuksa Temple to figure out the time of production and compared and considered the small earthen pagodas and gilt-bronze sarira reliquary buried in the pagoda with other Mugujeong pagodas and sarira reliquaries in the same period to discuss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the foregoing burial goods.

The forms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Three-story Stone Pagoda at Silleuksa Temple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structure of the stylobates, and based on the results, it was judged that the Three-story Stone Pagoda was built in the late 9th to early 10th century, the late Silla Dynasty period. In addition, it is estimated that this stone pagoda was built in the vicinity and moved to the current location and rebuilt later and that